

담배에 관한 나의 의견

어느사이엔가 담배는 현대인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버린듯하다.

그만큼 생활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그럴듯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담배를 기호식품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듯싶다.

아무런 주저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물론 담배 애호가일것이다.

담배가 언제, 어디로 부터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인류역사상 이토록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드물것이다라고 여겨진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 사이에 침투된것인지, 그 대중적 호소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자못 불가사의하다. 사춘기때, 어떤 영화속 남자주인공이 담배를 한모금 피우는 것을 보고 아주 멋지다라고 감탄한 적이 있다. 미남배우로, 그 장면에 딱 맞는 안성맞춤의 절묘한 담배연기가 최고였다. 지금도 그 기억은 생생하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술 그자체보다 그것을 마시는 분위기를 즐긴다고 한다. 그것은 누군가와 함께 하기 때문으로, 담배의 경우는 혼자서 피우는 데 걸보기에는 왠지 정취가 있는듯이 보인다. 그러한 이미지와는 반대로, 나는 담배라하면 어느쪽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제거해야만하는 아주 싫은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단지 흡연자 자신의 건강을 해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의 건강에 돌이킬수없는 악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갖가지 불치병에 걸려버리고 만다. 미국에서도 있었던 일로, 얼마전 어떤 흡연자가 폐암에 걸려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는 소송사건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주목을 끌었던 사건으로, 그때 나는 그 사람 조금 이상하네 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옆에 있었기에 병에 걸린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소송해야 하는 것인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담배가 몸에 절대적으로 나쁘다” 라는 얘기는 사회통념으로, 어린애조차도 확실히 알고있는데, 나잇살이나 먹어가지고 자신의 과오를 남에게 전가시키려는 비열하기 짝이없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대도 변천하여 최근 여성흡연자도 상당히 늘었는데 나는, 조금 치우친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여성인 경우 삼가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건강은 물론 다음 세대의 모태가 되기 때문이기도하다.

어쨌든 나는 담배는 딱 질색이다. 적어도 공공장소만이라도 껴적했으면 하고 빌어본다.